

국제유가 고공행진 경제회복 위협

WSJ, 15달러 오르면 미국 GDP 0.5%p 하락 ... 100달러 돌파 우려

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WSJ(월스트리트저널)은 2008년 이후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경제회복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12월20일 보도했다.

12월 셋째 주 국제유가는 배럴당 88.02달러로 전년대비 21% 상승했고, 가솔린도 갤런당 3.03달러로 14% 상승했다.

2011년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상승세가 계속되면 글로벌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.

이든 해리스 BoA메릴린치 북미지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“지금보다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걱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” 말했다.

이든 해리스의 분석에 따르면, 2008년 중반의 국제유가 급등은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맞물리면서 급격한 소비감소를 가져왔으며, 국제유가가 15달러 상승하면 2011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0.5%p 하락시켜 미국 중앙은행의 2차 양적완화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
<화학저널 2010/12/20>